**일병목회강좌 히브리서 3강**

2019. 4. 25

**1. 구원 그 이후**

**1) 갈등 가득한 현실**

- 하나님은 구원 후 현실을 살게 하신다.

•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거요, 내용이며,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시다.

• 하나님을 외면하면 있었던 생명이 다 썩어 버리고 다 부패하고 소멸하고 만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겪으면서, 인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어떤 측면들을 극복하여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신다.

- 아담이 바른 선택했더라면, 그 때부터 죽어났을 것이다. 탕자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다.

• 작은 아들이 돌아와 이제부터 |돌아와 잔치를 치른 그 다음날부터| 해야 할 일은 큰 아들의 불만 속에 감춰져 있다.

•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, 영광이고 명예라는 사실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.

- 하나님은 우리를 실력 없는 데서부터, 세상의 공포와 세상의 법칙이 우선하는 조건 속에서, 그래서 우리가 질 수 밖에 없고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, 그리고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죄와 하나님의 뜻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시험을 받고 실패하고 우는 과정 속에서 크게 하신다.

-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진급시킨다. 더 가자고 하신다.

**2) 모순 가득한 현실(롬7:14-25)**

- 거룩한 고백과 헌신과 기대를 하고 있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며, 현실이다.

• 우리 안에 죄와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.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죄가 나를 붙잡고 나를 안 놔주는 것이 현실이다.

• 내가 원한다고 해서 곧 내 실력인 것은 아니다.

•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.

-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자의 마음에도 갈등이 그대로 있다.

**3) 은혜 가득한 현실 (롬8:1-39)**

**① 승리케 하는 은혜**

- 죄가 운명을 결정하는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다. 성령이 너희 승리를 보장한다.

• 갈등을 해소시켜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, 갈등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. 하나님이 어떻게 갈등과 절망을 지키는지 보여주는 것이다.

•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갈등이 있다. 신앙이 좋으면 눌러 이기는 것이다. 없는 사람같이 평안해지지 않는다.

• 그 위협, 그 유혹, 그 갈등이 우리를 키운다.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을 뿐이다.

- ‘죄는 선택해봤자 아무 것도 아니고 부끄럽기만 하더라, 현실에서 아무리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편에 들겠다’는 선택을 하는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것이다.

-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, 고통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지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원칙에 묶여 있으면서, 거기서 승리를 |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|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다. 예수가 이룬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.

- 예수를 믿고 들어온 세계는,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그 안에 삼키고 있다.

•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 수는 있어도 거기가 운명일 수 없는, 더 큰 세계 속에 우리가 알았던 모든 낙심 실패 변명 눈물 후회가 이 속에 사로 잡혀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다.

**② 바울이게 하는 은혜**

- 바울은 회심한 것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께 사로잡힌 것이다.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잡아 하나님의 종으로 쓴 것이다.

- ‘죄인중의 괴수(딤전1:12)’라는 말은 스데반을 죽인 일을 말하는 것이며, 그 일이 평생 일을 한 것이다.

• 자기가 말이 안 되는 상황 경우를 만났을 때 나는 죽어도 싼 사람이라고 자기를 묶었을 것이다.

• 그가 가장 잘못한 것이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이다.

- 내가 약할 그 때 곧 강함이라는 말을 우리 현실에 도입해야 한다. 정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못했다는 후회가 실력을 한 걸음 키운다.

-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감동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 사건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, 그것이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.

• 우리가 눈뜨고 직면하는 공포와 위협과 시험과 죄악 된 세상 폭력이 다만 연극의 무대에 불과하다.

• 그보다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대 속으로 들어와 일부가 되고 마는 것이다.

**③ 자유케 하는 은혜**

**a. 명예를 택하는 자유**

- 고난이 영광과 나란히 나온다. 어디가 더 명예로운지 알아야 한다.

- 자유는 자발적 선택이다. 사랑은 100% 자발성이며, 믿음은 조건을 걸지 않는다.

• 고급한 경지에 가기 위해 이 갈등|아담이 실패했던|, 육신의 범과 죄의 법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것을 겪고 나아가라 한다.

- 우리는 몇 겹의 약속과 능력으로 쌓여 있다. “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”는 말씀에서 ‘모든 것’에는 ‘이건 아니다’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된다.

• 베드로의 부인도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외일 수 없다.

- 사랑은 법을 넘는다.

•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큰 세계관 안에 있는 것이지, 전체 세계관을 깨고 나와 최종 결론을 만들 수 없다.

-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고난들,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받고 있는 핍박들은 당연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.

**b. 선택한다는 것**

-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현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. 이 갈등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?

• 감옥에 있을 때는 자유만 반납하면 뭐든지 제공해줬다. 그러나 밖에서는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.(The Shawshank Redeption)

- 한국 교회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을 다시는 찾아올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. 아버지를 만났는데 할 말이 없는 것이다.

- 우리가 아는 세계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한 수 도움을 받고 우리 운명과 가치와 소원을 직접 만드는 세상을 살지 말고,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|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상|을 살아보라는 것이다.

-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지 보라는 것이다. 인류 역사 전체가, 인문학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결론인 것이다. 공포만 남을 뿐이다.

- 기독교는 긍정적 가치의 실재를 보여주어야 한다.

•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크다.

• 하나님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다.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, 하나님이 존재들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무시하는 것이다.

• 그러면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저주가 나올 뿐인데, 이것이 거짓말이다.

•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모든 일에 가치를 두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, 거기서 사랑과 겸손과 예의와 양보와 같은 것들이 나온다. 이것이 정직이다.

**2. 선택을 위한 지침**

**1) 분별하라(롬12:1-3, 14-21)**

- 삶으로 드리는 예배,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제사이며 예배이다.

- 선택을 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한다.

• 분별이 생기는데 오래 걸리고, 분별이 생겼는데도 그것을 행하는 실력이 만들어져야 한다. 그 과정이 중요하다. 그 과정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- 대개 그리운 시절과 후회 많은 시기가 겹친다. 그리운 추억이 되는 날을 살기도 하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고 후회하는 기회도 지금 갖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찌우신다. 그 둘을 화음같이 조율하신다.

- 어떤 기술과 전문성이나 유명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비하지 않으신다.

•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일하신다.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뜻이다.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대접하시는 것이다.

- 우리만이 빛이다. 아니면 모두 흑암이다. 우리만 한줄기 빛이며, 소금이며, 떡이고, 진리고, 소망이다.

**2) 인내하라(고전13:4-7)**

- 사랑은 환상도 능력도 정열도 아니고, 오래 참는 것이다. 자기의 분노를 누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내하는 것이다.

• 매일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며, 하루도 도전이 없는 날이 없다.

-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크게 알고,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도전을 하고,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켜 생각하게 하고, 결정하게 하고, 그 결과를 맛보게 하여 나로 하여금 실력이 생기게 한다.

• 이것이 현실이다.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얻은 기회라는 것을 안다면, 실력 있게 살겠다고, 직접 해보겠다고 나서야 한다.

- 바울은 살아서 성도들의 유익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살리신다면, 기꺼이 더 고생하겠다고 말한다(빌1:12-26).

• 고생이 지겨워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.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을 해야 한다.

• 그러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.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 힘에 넘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안한 날이 없다.

•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유익이고,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나르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살겠다고 말해야 한다. 고생을 당해야 한다.

-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심이 결론되는 것이 아니라, 성숙이 생겨야 한다. 성숙한다는 것은 안목이 생겨 큰 그림이 있어야 하며, 분별이 있어야 하고,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.

- 선택을 하면 선택을 했으니까 어느 한 길 밖에 갈 수 없다. 그러니 ‘저 길을 갈 걸’ 은 쓸 데 없는 얘기다. 이 길을 갔으면, 이 길을 간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.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며, 그것은 주로 비난을 받고 감수하는 것이다.